

보도일시	2024. 09. 27.배포시		
배포일자	2024. 9.27	매 수	총 2매
배포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자	이창호 실장 (02)2179-1048) 전재욱 차장 (02)2179-1135)

KIC, 런던 진출 국내기관과 유럽 인프라 투자 전망 논의

- 제28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 개최..현지 기관투자자 등 30여명 한자리에
- 블랙스톤 “유럽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향후 10년간 6배 성장 전망”

국부펀드 KIC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 기관투자자와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유럽 인프라 투자 시장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투자공사(KIC, 박일영 사장)는 런던지사 주관으로 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간) 제28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 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에는 주영한국대사관,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세계 최대 규모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조나단 켈리(Jonathan Kelly) 유럽 인프라 투자 대표가 맡았다.

켈리 대표는 “현재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은 미국 대비 2~3년 정도 성장이 뒤쳐진 상태이지만, 향후 10년간 지금보다 6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현재 유럽 시장 내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서버 10만 대 이상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처리 및 관리하도록 설계된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켈리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위축되었던 유럽 인프라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재생 에너지, 운송 섹터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경우 주요 상장사의 밸류에이션이 2021년 대비 60% 정도 하락한 점을 향후 투자 기회로 봤다. 미국 대비 규모가 큰 유럽 운송 섹터의 경우, 향후 도로 교통량 및 공항 수요 증가,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투자는 에너지(발전소·송유관 등), 디지털(통신망·데이터센터 등), 운송(도로·공항 등) 시설 같은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걸쳐 이뤄진다. 중장기로 이뤄지는 인프라 투자는 예측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KIC의 이건웅 런던지사장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 인프라 자산은 인플레이 및 경기 변동에 방어적인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인프라 산업 변화와 투자 시장의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고 향후 투자 기회를 논의한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각 해외 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문의처: 대외협력실 이창호 실장
Tel: (02)2179-1048, changho.lee@kic.go.kr
대외협력실 전재욱 차장
Tel: (02)2179-1135, jaeuk.jeon@kic.go.kr

“KIC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kic.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